

研究論文

17세기 초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전략의 특성과 일본어역관의 역할

김 정 호*

I. 들어가는 말	IV. 맺는 말
II. 조선사절단의 피로인 쇄환교섭전략의 특징	<참고문헌> <국문요약>
III. 피랍조선인 쇄환교섭에서의 일본어역 관의 역할: 박대근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7세기 초반의 사행록(使行錄)을 중심으로 임진왜란기 일본으로 피랍된 조선인(被擄人)들을 쇄환하기 위해 과건된 조선사절단이 취한 교섭전략의 특징과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일본어역관(倭譯官=倭通事)들의 역할과 의의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16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틈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침략적 야욕에 의해 발생한 임진왜란은 조선의 국토는 물론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전쟁과정에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많은 조선피로인의 존재¹⁾는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정치사상 전공(jhkim04@inha.ac.kr).

1) 임진왜란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피로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연구자에 따라 2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대체로 2~3만 명을 주장한 나이토오 슌보[内藤脩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76), 216쪽]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학자들은 대략 10만 명 내외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에게는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되었다. 전후 일본의 지속적인 요청²⁾에 따른 국교회복 교섭과정³⁾에서 조선정부가 일본에 대해 침략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피로인의 전원쇄환을 국교회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강력한 전원쇄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로인의 쇄환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그 결과 역시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임진왜란 직후인 1599년부터 국교회복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606년까지 일본은 쓰시마(對馬島)를 매개로 국교회복 교섭에 대한 대가의 차원에서 약 2,300여 명(4,000여 명 정도⁴⁾)의 피로인을 쇄환했으나⁵⁾ 그것은 전체 피로인의 수(약 10만명)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조선정부가 1607년 국교회복을 위한 제1차 교섭 사절단과 이후 1617년과 1624년 두 차례 사절단의 공식명칭을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정하는 한편 사절단의 방일(訪日) 목적을 명확히 조선피로인의 전원쇄환에 두고 막부와 쓰시마에 대한 압박과 설득전략을 추구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김문자, 「16~17세기 韓日관계에 있어서의 被擄人 쇄환: 특히 여성의 경우」, 『祥明史學』, 8·9합집(2003), 180쪽의 각주 2); 민덕기,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 잔류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인식」, 『韓國史研究』, 160(2008), 36쪽의 각주 3)을 참조. 반면 공식적으로 쇄환된 조선인의 수는 『宣祖修正實錄』에 언급된 사례(3천 여 명)를 인정하더라도 5,000~7,0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나카오 히로시(지/유종현(역)), 『조선통신사 이야기』(한울, 2005), 57쪽 참조.
- 2) 1607년 양국의 국서(國書)가 교환되어 국교회복이 이루어지 전까지 강화교섭을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왕래사절(往來使節)의 회수는 총 25회였는데, 그 중 조선이 일본에 사절을 파견한 것은 4차례이고 일본이 조선에 사절을 파견한 것은 21회에 달했다(孫承誌, 『朝鮮時代 韓日關係史外研究』(지성의 샘, 1994), 121~124쪽)는 사실에서 당시 조선에 비해 일본이 국교회복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 3) 양국 간 국교회복 교섭의 배경과 목적, 내용에 대해서는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1970);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1988); 洪性德,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韓日關係史研究』, 3(1995) 참조.
 - 4) 이 기간에 쇄환된 피로인의 숫자가 2,300여 명과 4,000여 명으로 다른 것은 1604년(선조 37년) 송운대사(松雲大師=惟政)·손문옥(孫文弼) 일행이 탐적사(探賊使)로서 일본으로 건너가 협상을 통해 귀국시킨 피로인의 숫자가 『宣祖修正實錄』, 선조 38년 4월 1일 을사조(乙巳條)에는 3천 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宣祖實錄』, 선조 38년 5월 24일 정유조(丁酉條)에는 1,39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5) 洪性德, 앞의 논문(1995), 68쪽의 <표 3> 및 仲尾 宏, 『朝鮮通信使: 江戸日本の誠信外交』(岩波書店, 2000), 201쪽의 <표 9> 참조.

반면 일본 측의 입장은 달랐다. 쇠환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조선에 비해 일본이 국교회복 이전에 피로인을 쇠환한 것이나 초기 세 차례의 조선사절단 방문 때 쇠환교섭에 응한 것은 쇠환이 목적이 아니라 쇠환교섭을 매개로 사절단의 방일을 유도하고 그것을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에도막부의 입장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히데타다(秀忠)—이에미츠(家光)로 이어지는 권력승계과정에서의 국내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조선과의 국교회복과 후속 조치로서 조선사절단의 정기적인 일본 방문이 절실했다. 쓰시마의 입장에서도 임진왜란 이전과 같이 조선과의 무역·통상적 독점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교의 정상화와 양국 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일본에게 조선피로인의 쇠환은 조선·일본간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국교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조선 측의 강한 쇠환요구에 소극적으로 호응하는 정도의 태도를 보였을 뿐, 적극적으로 전원쇠환에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피로인 쇠환을 목적으로 한 초기 세 차례 조선사절단의 사행록에 보이고 있는 막부의 ‘피로인의 쇠환여부는 피로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다’는 쇠환원칙의 고수와 쓰시마 관리들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조선사절단의 강한 불신과 불만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

이와 같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쇠환교섭 목적상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상의 불일치가 피로인 쇠환교섭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성과를 가져왔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쇠환교섭이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와 교섭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기 세 차례의 회담겸쇠환사절단은 피로인의 전원쇠환이라는 임무의 달성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했다. 막부에 대해서 끈질기게 일본 각지에서 쇠환에 협조할 것을 명시한 공식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쓰시마에 대해서 때로는 설득을 통해, 때로는 압박을 통해 쇠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인, 생계상의 이유, 조선

6) 피로인 쇠환교섭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이에 대한 조선사절단의 대응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호, 「임진왜란기 피랍조선인 쇠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과 일본어역관의 역할: 1607년, 1617년, 1624년의 사행록을 중심으로」,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 서울, 위커향호텔, 2008, 제2절을 참조.

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약화 등으로 인해 고국에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조선인들이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도 한 명의 피로인이라도 더 쇠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조선사절단의 피로인 쇠환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이 가장 상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1607년의 『해사록(海槎錄)』, 1617년의 『동사상일록(東槎上日錄)』과 『부상록(扶桑錄)』, 그리고 1624년의 『동사록(東槎錄)』 등 사행록이다. 일반적으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일본방문(1607년 국교회복 후 1811년까지 총 12회)이 한일교류사의 측면에서 양국 간의 우호를 상징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소한 초기 세 차례의 사절단은 조선이 당한 굴욕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많은 장애를 헤쳐 나가면서 전쟁의 결과로 피랍된 조선인들을 쇠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즉 우호의 의미보다는 갈등과 상처의 이미지가 강한 사행(使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전후 20여 년간의 한일관계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이 초기 사행록에 나타난 조선피로인⁷⁾ 쇠환교섭에 초점을 맞춘 우선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매우 불만족스럽기는 했지만 초기 세 차례의 사절단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상사(上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 등 관료들의 역할과 더불어 쇠환교섭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초기 일본어역관들의 높은 사명감과 실천적 노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일본어역관들은 단순히 언어적 매개자의 존재가 아니라 전원쇠환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외교적 교섭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일본 각지에 직접 파견되어 현지 관리들과 피로인들을 설득하는 임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1,418명의 조선피로인을 쇠환⁸⁾한 1607년 제1차 사절단이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원했던 일본 측의 자발적 협력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쇠환을 진행했던 것에 비해 321명을 쇠환⁹⁾한 1617년의 제2차 사절단, 그리고 146명¹⁰⁾을 쇠환한 1624년의 제3차 사절단의 성

7) 임진왜란기 피랍된 조선인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연구성과에 관해서는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과 정보의 교류」,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1』(學古房, 2008), 200쪽 각주 5 참고.

8) 『海槎錄下』, 丁巳年(1617) 윤6월 26일(丁亥),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해행총제Ⅲ』(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4), 325쪽.

9) 『光海君日記』, 권120, 광해군 9년, 10월 26일 정사조(丁巳條) 참조.

과는 상당부분 박대근(朴大根, 1566~?)을 비롯한 일본어역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초기를 포함하여 사절단에 참여했던 전체 조선역관들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그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李元植의 연구¹¹⁾와 『동사일록(東槎日錄)』(1682), 『동사록(東槎錄)』(1682), 『동추록(東楸錄)』(1711), 『명사록(溟槎錄)』(1763)을 각각 지은 역관 김지남(金指南), 홍우재(洪禹載), 김현문(金顯門), 오대령(吳大齡)에 대한 백옥경의 연구 성과¹²⁾는 향후 조선역관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초기 세 차례의 사절단에 동행했던 일본어역관들의 행적과 쇄환교섭노력을 의미 있게 분석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초기 일본어역관들이 직접 서술한 사행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및 『통문관지(通文館志)』를 비롯한 일단의 사료(史料)와 초기 사행록에 남아 있는 행적을 가지고서라도 피로인 쇄환교섭 과정에서의 일본어역관들의 역할과 의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진왜란과 종전, 국교회복 교섭과 초기 쇄환사절단의 파견으로 이어지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한일관계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이 본 연구가 피로인 쇄환교섭에서의 일본어역관들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근본 이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초기 세 차례 사행록에 나타난 조선사절단의 피로인 쇄환교섭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다양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한편 교섭과정에서 박대근을 위시한 일본어역관들이 그러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초기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이 갖는 정치외교사적 의미와 일본어역관들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는 『해사록』, 『동사상일록』, 『부상록』,

10) 『仁祖實錄』, 권8, 인조 3년 3월 13일 신유조(辛酉條) 참조.

11) 李元植, 『朝鮮通信使の研究』(思文閣出版, 1997), 451~462쪽.

12) 백옥경, 「壬戌使行錄에 나타난 譯官의 활동과 日本認識」, 『韓國思想史學』, 26(2006); 백옥경, 「譯官 吳大齡의 日本認識: 『溟槎錄』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38(2006); 백옥경, 「譯官 金顯門의 日本認識: 1711년 사행록 『東槎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29(2007).

『동사록』 등 사행록을 중심으로 관련 사료와 기존 연구가 함께 검토되어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II. 조선사절단의 피로인 쇄환교섭전략의 특징

초기 세 차례의 조선사절단은 공통적으로 피로인 쇄환을 주목적으로 파견된 것이었다. 물론 1607년 제1차 사절단의 경우 국교회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것은 송운대사(松雲大師) 일행을 통해 국교회복 교섭¹³⁾을 완료 한 후 확인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피로인의 쇄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 차례 조선사절단의 공식명칭이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¹⁴⁾였던 것도 피로인의 쇄환을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설정했던 당시 조선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607년 제1차 사절단의 경우 예조(禮曹)가 에도막부 집정(執政)에 보낸 서계(書契)에는 종전 이후 1606년까지 일본이 행한 피로인의 쇄환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점과 함께 남아 있는 조선피로인을 모두 쇄환하는 것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화친(和親)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¹⁵⁾ 이는 곧 사절단의 방일 목적이 명확히 피로인의 전원쇄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17년 제2차 사절단 역시 제1차와 마찬가지로 전원쇄환이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¹⁶⁾에 잘 나타나 있듯이 피로인 쇄환을 목적으로 파견된 것이었다. 이 점은 사절단이 막부의 관료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에도 잘 드러나 있다.

13) 송운대사 일행의 사행(使行) 내용과 외교사적 의의에 관해서는 손승철, 『松雲大師(四溟堂) 對日使行의 외교사적 의의』,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4』(學古房, 2008), 179~201쪽 참조.

14) 1607년과 1617년에 비해 1624년 제3차 사절단의 명칭은 ‘쇄환’이 빠진 회답사(回答使)였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앞선 두 차례의 사절단과 같이 일본방문의 목적이 명확히 피로인 쇄환에 있음을 지적한 것[『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10일(辛亥),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해행총재III』(探究堂, 1975), 180쪽 참조]을 볼 때 3차 사절단 역시 쇄환사(刷還使)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선사절단의 명칭은 1636년부터 (조선)통신사(通信使) 또는 신사(信使)로 변경되어 19세기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15) 『海槎錄上』, 丁未年(1607) 1월 12일(丙子), 『국역해행총재II』(1974), 238~239쪽.

16) 『光海君日記』, 권111, 광해군 9년 5월 30일 계사조(癸巳條) 참조.

관백(關伯=將軍)이 지성으로 사절단 일행을 접대해 주시니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후로의 일 중에는 오직 우리 백성을 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원컨대 집행(執政)은 관백에게 전하여 철저하게 피로인을 찾아내어 돌려 보내되, 한 사람도 빠진 이가 없게 하라. 오늘날 이웃끼리 수호(修好)하는 알맹이는 오직 이 일(쇄환)에 있으니, 만일 쇄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면 이는 한갓 외모(外貌)를 위한 것이요 성신(誠信)은 아닌 것이다.¹⁷⁾

1624년 제3차 사절단의 방일은 실질적으로 피로인 쇄환을 주목적으로 한 마지막 사행(使行)¹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조(仁祖)가 회답사(回答使) 정립(鄭立) 등에게 “잡혀간 사람 중에 아직 남아 있는 자가 많으니 쇄환(刷還)하는 일을 착실하게 하라”¹⁹⁾고 지시하고, 사절단이 쓰시마 관리들에게 “우리들이 왕명(王命)을 받들고 일본으로 온 것은 오직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쇄환하는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이니 오로지 그대들이 힘써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²⁰⁾고 한 것에서 피로인 쇄환이 제3차 사행의 주목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세 차례의 사절단은 공통적으로 조선피로인의 전원쇄환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사절단 일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쇄환전략과 방법을 활용했다. (1) 막부 및 사절단의 사행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쓰시마와의 교섭을 통한 쇄환, (2) 사절단의 에도(江戸)까지의 왕복 이동경로 주변에 위치한 각 지역(長門, 肥前, 筑前, 肥後, 筑後, 豊後, 豊前, 周防, 壱岐島 등) 및 대도시(博多, 大阪, 京都, 江戸 등)로부터의 쇄환, (3) 여러 지역으로부터 사절단의 방문을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피로인의 쇄환, (4) 사행경로 주변 지역에 일본어역관들을 파견하여 찾아낸 피로인의 쇄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행시기별로 활용도가 달라지긴 했으나 대부분 함께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1607년의 경우 사행록에 나타난 바로는 상대적으로 쇄환이 용이했

17)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8월 26일, 『국역해행총제II』(1974), 372쪽.

18) ‘통신사(通信使)’ 또는 ‘신사(信使)’로의 명칭변경과 더불어 1636, 1643, 1655년에도 피로인 쇄환 교섭이 있긴 하였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1636년과 1655년에는 쇄환 성과가 거의 전무(全無)하였고 1643년에는 불과 14명을 쇄환하였으나 도중에 6명이 병사(病死)했다는 기록[『仁祖實錄』, 권 44, 인조 21년 10월 29일 기축조(己丑條) 참조]이 실록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19) 『仁祖實錄』, 권6, 인조 2년 8월 20일 임인조(壬寅條).

20) 『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10일(辛亥), 『국역해행총제III』(1975), 180쪽.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쓰시마 관리들의 비협조와 피로인이 살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쇠환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²¹⁾을 보임으로써 사절단이 결과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기는 했지만,²²⁾ 막부의 명령에 의거 지역의 번주(藩主)들과 도시의 태수(太守)들이 자발적으로 조선피로인을 보내오는 등²³⁾ 비교적 수월한 쇠환교섭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1차 사행이 국교회복 교섭을 매듭짓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막부는 물론 지역의 유력자(有力者)들도 쇠환에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와 제3차 사절단의 상황은 달랐다. 우선 제1차 사절단의 방일 때 명시되었던 ‘피로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르게 한다’는 막부의 쇠환원칙²⁴⁾이 지속됨으로써 쇠환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사절단의 입장에서는 조선피로인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원칙이 현지 일본인들에게 쇠환에 협력하지 않을 핑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조선피로인들이 영원히 조국에 돌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이는 제2차 사절단이 막부의 쇠환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 것에 잘 드러나고 있다.

사세(事勢)가 정미년(丁未年=1607년)과는 다르다. 만일 다만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귀국을 허락한다면 비록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주인으로서 어느 누가 보내기를 즐겨하겠는가?(중략) 전에는 세월이 오래지 않아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으나 왜주(倭主)들이 억지로 잡아두고 보내지 않아서 쇠환된 자가 매우 적었다. 이번에는 세월이 또한 오래되었으니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비록 많더라도 매양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갔다는 것을 핑계로 가로막으며 보내지 않음이 이전보다 반드시 심할 것이다. 장군(將軍)이 만약 모두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조선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신의(信義)로써 사귀려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중략)²⁵⁾

21) 『海槎錄下』, 丁未年(1607) 윤6월 19일(庚辰), 『국역해행총재II』(1974), 323쪽 참조.

22) 『海槎錄下』, 丁未年(1607) 윤6월 26일(丁亥), 『국역해행총재II』(1974), 325~326쪽 참조.

23) 『海槎錄上』, 丁未年(1607) 4월 16일(戊申), 『국역해행총재III』(1974), 274쪽; 『海槎錄下』, 丁未年(1607) 6월 23일(甲辰), 『국역해행총재II』(1974), 313쪽 참조.

24) 막부는 조선 예조에 보낸 화답서계(和答書契)에서 “피로인들이 귀국할 생각이 없으면 각각 생각대로 해 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속히 돌아갈 준비를 해 주라는 것이 국왕의 엄명(嚴命)이다”[『海槎錄下』, 丁巳年(1617) 6월 20일(辛亥), 『국역해행총재II』(1974), 311쪽]라고 함으로써 피로인 쇠환이 궁극적으로 피로인 자신들의 의사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쓰시마의 비협조 역시 점차 두드러졌다. 이는 제2차 사절단이 쓰시마에 도착한 후 쓰시마에 있는 조선피로인을 모두 쇄환하라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쓰시마 관리들이 빈손만으로는 될 수 없고 반드시 재물(財物)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사절단과 갈등을 빚은 것²⁶⁾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막부의 명령서를 받기 전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피로인을 쇄환해 오라는 사절단의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렵다고 한 쓰시마 관리들의 태도²⁷⁾ 역시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쓰시마의 무성의와 비협조에 대해 사절단은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장군(將軍)과 집정(執政)을 다시 접견할 길이 없고, 무릇 통고(通告)하는 것을 쓰시마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비록 충분히 간곡하게 타이른다 하더라도 한바탕의 한담(閑談)에 불과하고, 매번 힘껏 노력한다고 대답은 하나 실효를 보지 못하니 더욱 분한 노릇이다.²⁸⁾…너희들이 쓰시마에 있을 때에는 여러 섬에 쇄환을 위해 사람들을 나눠서 보내려고 하니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중간에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여러 번 말하니 벌써 나눠 보냈다고 했다가 중도에는 ‘장군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여러 섬에 나눠 보내기가 온당치 않을 듯 하므로 보내지 않았으니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당장 그대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 말을 또 바꿔 어렵다고 하니 너희들이 하는 짓은 일마다 미덥지 못하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²⁹⁾

쓰시마 관리들의 비협조는 1624년 제3차 쇄환교섭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피로인들이 사절단 일행을 찾아와 고국에 돌아갈 의사를 밝히려 하는 것에 대한 쓰시마 사람들의 방해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지적³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절단은 “듣건대 ‘이 섬(쓰시마)에도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많은데 쇄환하기를

25)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1일, 『국역해행총재III』(1975), 84쪽.

26)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7월 12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49~350쪽 참조.

27) 『扶桑錄』, 丁巳年(1617) 7월 12일(甲戌), 『국역해행총재III』(1975), 29~32쪽 참조.

28)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3일(乙丑), 『국역해행총재III』(1975), 88쪽.

29)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13일(乙巳), 『국역해행총재III』(1975), 106쪽.

30) 『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21일(癸卯), 『국역해행총재III』(1975), 187쪽; 『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25일(丙午), 『국역해행총재III』(1975), 189쪽 참조.

즐거하지 않는다'하니 그대들은 할아버지·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조선 조정(朝廷)의 은혜를 입은 처지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³¹⁾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쇠환에 협조할 것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개 지난 번 사행에 피로인들을 많이 쇠환한 것을 지역의 장관(將官)들이 다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하지 못한다고 한다”³²⁾는 역관(譯官) 최의길(崔義吉)의 전언에 나타나 있듯이 제1차 쇠환교섭에서 두드러졌던 각 지역으로부터의 자발적 피로인 쇠환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또한 스스로 사절단 일행을 찾아오는 조선피로인의 수도 급격히 줄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³³⁾ 역시 많아졌다.³⁴⁾

31) 『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17일(戊戌), 『국역해행총재III』(1975), 184쪽.

32)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25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82쪽.

33) 제2차 사절단의 사행록에는 조선피로인 스스로 고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있다. 10세 이전에 포로로 잡혀 온 경우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으며, 대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식견(識見)이 있는 사족(士族)이나 일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고 처자(妻子)가 있거나 생계가 안정된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扶桑錄』, 丁巳年(1617) 8월 22일(甲寅), 『국역해행총재III』(1975), 69~70쪽;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20일(壬子), 『국역해행총재III』(1975), 114쪽 참조]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사절단이 모두 나서 아무리 반복해서 설득해도 돌아가기를 거부하거나,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도 중간에 변심하여 도망 가버리는 피로인들의 모습[『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15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80쪽;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22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81쪽 참조]도 묘사되고 있다. 제3차 사행록 역시 어머니가 아직 조선에 생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과 형의 편지를 받았음에도 귀국의사가 없는 사람,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선피로인들의 행태[『東槎錄』, 甲子年(1624) 12월 24일(甲辰), 『국역해행총재III』(1975), 244쪽 참조]가 기술되어 있다.

34)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쇠환된 조선인의 처우에 관한 것이다. 1624년의 사행록인 『동사록』에는 저자 강홍중(姜弘重)이 당시 국왕[仁祖]에게 한 말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쇠환한 사람을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달래어 겨우 돌아왔는데, 오는 과정에서야 괜찮았지만 부산에 와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신(臣) 등이 상경하던 날 따라오며 말 앞에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지극히 가련하여 행중(行中)에서 쓰고 남은 쌀을 덜어내어 각기 5일분 양식을 주어 보냈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들이 조선에 돌아와서 낭패당한 상황을 듣는다면 향후에는 비록 쇠환하려 하여도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쇠환인 가운데 수십 명은 포(砲) 쏘는데 능숙하니 서울로 데려와 요포(料布)를 넉넉히 주고 별대(別隊)로 삼아 훈련도감포수(訓練都監砲手)를 가르치면 좋을 듯합니다”[『東槎錄』, 乙丑年(1625) 3월 25일(癸酉), 『국역해행총재III』(1975), 300~301쪽]. 이에 대해 국왕은 포수(砲手)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미 제3차 사행과정 중 조선사람 이문장(李文長)이 조선피로인들에게 조선으로 돌아가야 생계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전파하고 다닌다는 역관의 언급[『東槎錄』, 甲子年(1624) 11월 27일(丙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사절단은 막부와 쓰시마 관리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압박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그것을 토대로 쇠환에 비협조적인 지역의 일본인들과 직접 교섭하는 방법을 취했다. 우선 막부에게는 피로인 쇠환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 서계(書契)의 개정을 요구³⁵⁾했다. 이는 국서(國書)인 서계에 쇠환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막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쇠환의 중요성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절단은 “쇠환의 문제에 있어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만 보내기로 한다면 결국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다시 엄명(嚴命)을 내려 전부 보내도록 해달라”³⁶⁾거나 “쇠환에 관한 일은 이미 승낙을 받았으나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모두 주왜(主倭)를 겁내어 나오지 않으니, 만약 엄명이 아니면 쇠환하기가 어려울 것”³⁷⁾이라는 주장을 통해 막부로 하여금 각지에 쇠환명령을 재차 내리도록 압박을 가했다. 여기에 “모름지기 문서를 만들어서 쇠환하는 데 증빙(證憑)하는 것으로 해야겠다”³⁸⁾고 함으로써 사절단의 쇠환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서 막부의 공식적인 쇠환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쓰시마 관리들에 대해서도 “그대는 조부(祖父) 때부터 우리나라 일에 힘을 대해 왔었는데, 지금 그대가 쇠환의 일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단 그대가 조부의 공적(功績)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조선 조정에서 그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³⁹⁾거나 “비록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두 돌려보내지 않으니 쓰시마도 책

『국역해행총재III』(1975), 215쪽 참조이나 “조선이 사로잡혀 온 사람을 비록 쇠환하기는 하나 대우를 너무 박하게 한다 하는데, 사로잡혀 온 것이 제 뜻이 아니거늘 이미 쇠환했으면 어찌서 그 같이 박대하오?”[『東槎錄』, 甲子年(1624) 11월 23일(癸酉), 『국역해행총재III』(1975), 212쪽]라는 피로인들의 말이 있고, 또 위의 예문에서 당시 쇠환된 조선인들에 대한 처우가 불확실했음을 볼 때, 쇠환인에 대한 사후처리(事後處理) 문제 역시 피로인 쇠환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쇠환된 피로인의 처우와 조선의 인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덕기, 앞의 논문(2008), 35~65쪽을 참조 바람.

- 35)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4~9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76~379쪽; 『東槎錄』, 甲子年(1624) 12월 23일(癸卯), 『국역해행총재III』(1975), 242쪽 참조.
 36)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5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77쪽; 『東槎錄』, 甲子年(1624) 12월 22일(壬寅), 『국역해행총재III』(1975), 241쪽.
 37) 『東槎錄』, 甲子年(1624) 12월 22일(壬寅), 『국역해행총재III』(1975), 241쪽.
 38)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5일(丁酉), 『국역해행총재III』(1975), 92쪽.
 39)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1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75쪽.

입이 없지 않다”⁴⁰)고 하여 쓰시마의 쇠환협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피로인 쇠환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쓰시마의 비협조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사로 잡혀 온 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만나보려 해도 왜인들이 곳곳에서 막아 보지 못하게 한다’하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각처(各處)에 통문(通文)을 내어 그것을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옹을 것이다”⁴¹)고 하면서 쓰시마에 있는 조선피로인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돌아갈 때 확인해서 쇠환시켜야 한다⁴²)고 하여 쓰시마 관리들에게 구체적인 쇠환협력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기 사절단은 상황변화와 조건의 열악함 속에서도 조선피로인의 전원 쇠환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전략적 방법을 추구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서계개정과 공식문서의 작성 요구, 막부 및 쓰시마관료들에 대한 설득과 압박 등은 다양성과 지속성으로 대표되는 조선 측 교섭전략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전략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현지의 쇠환교섭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일본어역관의 능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전략의 구현에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 차례의 쇠환사절단에 모두 참여한 박대근을 비롯한 일본어역관들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피랍조선인 쇠환교섭에서의 일본어역관의 역할: 박대근을 중심으로

왜역관(倭譯官) 또는 왜통사(倭通事)로 불리는 조선시대의 일본어역관은 태종(太宗) 14년(1414년) 일본과의 국교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체계적 양성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세종(世宗) 때에는 한어(漢語)·몽고어(蒙古語)·여진어(女眞語)와 함께 일본어역관 양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제도화는 세조(世祖)와 성종대(成宗代)를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으

40) 『扶桑錄』, 丁巳年(1617) 10월 6일(丁卯), 『국역해행총제III』(1975), 130쪽.

41) 『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17일(戊戌), 『국역해행총제III』(1975), 184쪽.

42)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7월 12일, 『국역해행총제III』(1974), 349쪽 참조.

로 정비되었다.⁴³⁾

원래 일본어역관은 조선과 중국 명(明)나라와의 밀접한 외교관계에 기인하여 한어(漢語=漢學) 역관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으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일본과의 국교회복 교섭 및 피로인 쇄환교섭 등의 외교적 실무관계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1636년 이후 피로인 쇄환교섭이 일단락된 뒤에는 통신사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역관으로서의 실무 이외에 일본과의 정보 및 문화교류의 매개자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⁴⁴⁾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 조선사절단 사행의 주목적이 임진왜란기 피랍된 조선인을 쇄환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사절단에 포함된 일본어역관의 역할 역시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최대한 많은 피로인을 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구체적으로 초기 세 차례의 사행을 수행했던 역관의 수는 1차에 6명(김효순, 박대근, 한덕남, 양대북, 최의길, 박응몽),⁴⁵⁾ 2차에 7명(박대근, 최의길, 강우성, 정순방, 한덕남, 정언방, 이현남),⁴⁶⁾ 그리고 3차에 9명(박대근, 이언서, 홍희남, 박언황, 강우성, 이형남, 장성민, 송예수, 정충현)⁴⁷⁾이었다. 이 중 한학역관(漢學譯官)인 박응몽, 정언방, 이현남, 송예수, 정충현을 제외하면 1차에 5명, 2차에 5명, 3차에 7명의 일본어역관이 참여했다. 평균 4~5백 명 정도의 전체인원 중 일본어역관의 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피로인 쇄환교섭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

초기 사절단을 수행했던 일본어역관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우선적으로 사행여정 과정 상 필요한 사항들 일체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일본어역관들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적 매개자에 한정되지 않았다. 일본 측의 정치외교적 의도를 파악하여 직접 논쟁과 담판⁴⁸⁾을 벌이기도 하고, 일본 관리들에게 쇄환의 필요성을 직접 역설⁴⁹⁾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전

43) 백옥경, 「朝鮮 前期 譯官의 職制에 대한 考察」, 『梨花史學研究』, 29(2002), 131~132쪽 참조.

44) 오바타 미치히로,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와 통역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5』(學古房, 2008), 128~129쪽 참조.

45) 「海槎錄下」, 丁未年(1607), 回答兼刷還使東槎員役錄, 『국역해행총재II』(1974), 339쪽 참조.

46) 「扶桑錄」, 丁巳年(1617), 『국역해행총재III』(1975), 13쪽 참조.

47) 「東槎錄」, 甲子年(1624), 天啓甲子日本回答使行中座日, 『국역해행총재III』(1975), 161~162쪽 참조.

48) 「海槎錄上」, 丁未年(1607) 5월 10일(壬申), 『국역해행총재II』(1974), 285쪽;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7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78쪽; 「扶桑錄」, 丁巳年(1617) 8월 15일(丁未), 『국역해행총재III』(1975), 59쪽 등 참조.

달50)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쇄환을 위한 교섭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일본 각지에 파견되어 쇄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정부분 성과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초기 사절단을 수행한 일본어역관 중에서도 특히 활약이 두드러졌던 인물이 박대근이었다.

박대근은 1566년(명종 21년)생으로 1591년(선조 24년)에 역과(譯科)에 합격했다.⁵¹⁾ 사헌부(司憲府)의 아전(衙前)이었다가 임진왜란기 일본인에게 죽음을 당한 박연수(朴連壽)가 부친이다.⁵²⁾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박대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박대근의 자(字)는 현구(玄久)이고 본관은 무안(務安)이다. 임진란(壬辰亂) 때에 적의 정세를 정탐하여 행재소(行在所)에 아뢰었으므로, 특별히 서부참봉(西部參奉)에 제수되었다. 이때부터 조정의 명을 받고 여러 번 왜국(倭國) 사신을 접대하였다. 병오년(丙午年=1606년, 선조 39년)에 능(陵)을 범한 적을 바치도록 타일렀으므로, 차서(次序)를 뛰어 넘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정미년(丁未年=1607년, 선조 40년)·정사년(丁巳年=1617년, 광해군 9년)·갑자년(甲子年=1624년, 인조 2년)에 우리 사행이 세 번 일본에 가고 기유년(己酉年=1609년, 광해군 원년)·임술년(壬戌年=1622년, 광해군 14년)에 선위사(宣慰使)가 두 번 부산에 갈 때 공(公)이 번번이 따라가서 말을 예리하게 하여 거짓말을 꺾으니, 왜인(倭人)이 모두 경탄하여 승복하고 감히 속여 업신여기지 못하였으며, 전후(戰後)에 남너 수 천 인을 쇄환하였다. 상국(相國)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늘 장려하여 임용하고 왜노(倭奴)에게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물었다[동주(東州)가 지은 묘표(墓表)에 나와 있다]. 벼슬은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⁵³⁾

49)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8월 17일, 『국역해행총재III』(1974), 373쪽; 「扶桑錄」, 丁巳年(1617) 7월 13일(乙亥), 『국역해행총재III』(1975), 31쪽; 「扶桑錄」, 丁巳年(1617) 8월 27일(己未), 『국역해행총재III』(1975), 79~80쪽;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17일(己酉), 『국역해행총재III』(1975), 110쪽; 「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10일(辛亥), 『국역해행총재III』(1975), 181쪽 등 참조.

50) 「扶桑錄」, 丁巳年(1617) 8월 13일(乙巳), 『국역해행총재III』(1975), 54쪽 참조.

51) 『譯科榜目(影印本)』(民昌文化社, 1990), 8쪽.

52) 『宣祖實錄』, 권 202, 선조 39년 8월 23일 기미조(己未條) 참조.

53) 『국역 통문관지』(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제2집(제7권), 34~35쪽.

위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듯이 박대근은 일본어역관으로서 임진왜란과 이후 일본과의 교섭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일반적인 서열을 뛰어넘는 관직을 제수 받은 것은 당시 그의 활약이 정부로부터 크게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문관지』 외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임진왜란 직후인 1593년(선조 26년)부터 1627년(인조 5년)까지 약 35년간의 박대근의 활약상이 잘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임진왜란기에는 주로 일본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달에 주력했고, 전후에는 쓰시마 관리들과의 접촉과 협상을 통한 조선·일본간 국교회복교섭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에도 일본정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일(對日) 외교교섭의 최전선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문관지』에서 이덕형에게 항상 중용되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선조나 광해군 역시 박대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했음⁵⁴⁾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러나 초기 사절단의 일행으로 파견된 박대근이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진 조선피로인 쇠환교섭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박대근 스스로 일본 사행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세 차례의 사행록만이 쇠환교섭에서의 그의 행적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⁵⁵⁾라고 볼 수 있다.

박대근은 세 차례 사절단의 당상역관(堂上譯官)으로 참여했다. 제1차 사행은 그의 나이 42세 때이고, 2차는 52세, 그리고 3차는 59세 때이다. 상사와 부사, 종사

54) 1606년(선조 39년) 쓰시마의 강화요청과 관련된 선조와 심희수(沈喜壽)의 대화 속에서 선조가 “박대근은 어찌서 (왜관에) 들여보내지 않는가?”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어찌 박대근을 들여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인(武人)을 골라서 함께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무인으로서 나이 젊고 영리한 자를 아직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희춘(蔣希春)을 남쪽에서 불러온 뒤에 떠나 보내려 합니다”[『宣祖實錄』, 권196, 선조 39년 2월 12일 신해조(辛亥條) 참조]라고 하여 박대근의 능력을 신뢰하는 선조의 의중을 표현한 것이나, 1609년(광해군 원년) 일본 사신 일행 접대와 관련하여 사헌부가 박대근이 비록 공(功)은 있으나 상(償)이 너무 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 광해군이 그의 공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光海君日記』, 권23, 광해군 원년 12월 20일 정묘조(丁卯條) 참조] 등은 그 예이다.

55) 비록 피로인 쇠환교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박대근이 사행을 통해 일본인과 교류하면서 그로부터 수묵화(水墨畵)를 받은 뒤 또 다른 작품을 원한다는 서한(書翰)을 쓴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서한의 내용이 나와 있는 초상화(肖像畵)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박대근이 일본인들과 개인적으로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山内長三, 「海北友松と朴大根」及「通信使と狩野常信」, 『韓國文化』, 1984.5, 25~30쪽을 참조.

관 등 사행단의 고위 관료들은 매회 변경되었지만 박대근은 세 차례 모두 참여했다. 일본 측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경험과 능력을 지닌 박대근과 같은 일본어역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당상역관은 상통사(上通事)의 보좌를 받으며 사행중 공사(公事)의 실질적인 일을 책임지는 임무를 지녔으며, 그런 면에서 박대근의 지위와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세 차례의 사행록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때, 쇄환에 관한 대부분의 외교적 교섭은 박대근이 담당했다. 물론 교섭은 상사와 부사, 종사관 등 관료들과의 유기적 협조와 논의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조선 측이 가지고 있는 피로인 전원쇄환의 원칙을 실제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며, 때론 압박을 가하는 역할은 거의 박대근이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07년의 『해사록』에서 막부관료가 사절단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공(進貢)하는 일과 통화(通貨)하는 일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자 박대근이 이를 반박하여 꺾어버렸다⁵⁶⁾는 사실이나 1617년의 『동사상일록』에서 박대근이 쓰시마 관리들이 쇄환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 조선에 오는 세견선(歲遣船)과 특송선(特送船) 문제를 언급하자 이를 논박한 것⁵⁷⁾은 그 예이다.

특히 1617년의 『부상록』에는 박대근의 독자적인 교섭능력이 발휘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박대근이 쓰시마 관리와 쇄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쓰시마 측이 ‘섬에 있는 피로인들은 지난번에 모두 쇄환했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나 손자가 있는 사람들로써 쇄환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자, ‘어려운 점은 조선 측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 우선적으로 모두 찾아내야 하며, 특히 말로만 협조하겠다고 하면 조선 사신(使臣)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니 서면(書面)으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⁵⁸⁾고 함으로써 조선 사신을 핑계삼아 쓰시마 관리들을 압박하는 전술을 전개한 것은 그의 교섭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막부의 회답서계와 집정의 쇄환문서작성에 관한 협상이 벌어지자 “국왕(國王)의 서계도 반드시 고친 다음에야 그만둘 것이고, 집정의 문서 역시 백 번을 고치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떠날 것이다”⁵⁹⁾라고 한 것도 쇄환교섭에서의 박대근의 의지와

56) 『海槎錄上』, 丁未年(1607) 5월 10일(壬申), 『국역해행총재II』(1974), 285쪽 참조.

57)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10월 10일, 『국역해행총재II』(1974), 385쪽 참조.

58) 『扶桑錄』, 丁巳年(1617) 7월 13일(乙亥), 『국역해행총재III』(1975), 31쪽 참조.

59)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7일(己亥), 『국역해행총재III』(1975), 96쪽.

독자적 능력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피로인 쇠환과정에서 쓰시마 관리들의 의도적 방해에 대해 ‘이것이 어찌 손님과 주인이 서로 공경하는 예인가’라고 하여 엄하게 꾸짖는 모습⁶⁰에서도 박대근이 얼마나 조선피로인의 쇠환교섭에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박대근은 쇠환교섭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이 직접 피로인을 쇠환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가 1617년 제2차 사행에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안경복(安景福)과 함께 포로된 사람으로서 뒤떨어진 자들을 직접 불러 모으기도 하고,⁶¹ 최의길(崔義吉)과 함께 규슈(九州) 북부의 고쿠라(小倉)항에 직접 가서 피로인들의 쇠환에 힘쓴 것⁶²은 그 예이다.

1624년의 『동사록』에는 사절단의 행례(行禮)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박대근이 일본 측과 논변(論辯)하는 모습⁶³과 쇼오군(將軍)이 사절단을 맞이할 문안사(問安使)를 보냈다는 소식에 대해 쓰시마 관리가 박대근을 먼저 보내 교섭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박대근이 먼저 떠나는 장면,⁶⁴ 그리고 쇠환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집정 서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조선 측의 입장을 박대근이 전달하는 부분⁶⁵ 등이 보이는데, 이 역시 5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교섭의 선봉장으로서 활약했던 박대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근거이다.⁶⁶

60)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17일(己酉), 『국역해행총제III』(1975), 110쪽 참조.

61)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15일(庚未), 『국역해행총제III』(1975), 109쪽 참조.

62)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25일(丁巳), 『국역해행총제III』(1975), 120쪽 참조.

63) 『東槎錄』, 甲子年(1624) 10월 10일(辛亥), 『국역해행총제III』(1975), 181쪽 참조.

64) 『東槎錄』, 甲子年(1624) 12월 1일(辛巳), 『국역해행총제III』(1975), 220쪽 참조.

65) 『東槎錄』, 甲子年(1624) 12월 23일(癸卯), 『국역해행총제III』(1975), 242쪽 참조.

66) 박대근처럼 막부 및 쓰시마와의 외교교섭을 직접 담당하지는 못했지만,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피로인 쇠환에 앞장섰던 일본어역관들의 노력 역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사행록의 곳곳에는 사신이 일본어역관들을 각 지에 파견하여 피로인을 쇠환해 오는 장면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제1차와 제2차 회담겸쇠환사절에 참가했던 최의길(崔義吉)과 제2차와 제3차 사행에 참가했던 강우성(康遇聖)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사신의 명령에 의해 일본 각지에 파견되어 쓰시마 및 현지 일본인들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선피로인의 쇠환을 이끌었다. 특히 막부의 쇠환원칙 고수와 쓰시마의 비협조가 두드러졌던 제2차와 제3차 사행의 경우 이들이 직접 쇠환한 피로인들이 전체 피로인쇠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海槎錄下』, 丁未年(1607) 윤6월 1일(壬戌), 『국역해행총제III』(1974), 315쪽; 『東槎上日錄』, 丁巳年(1617) 9월 9일, 『국역해행총제II』(1974), 379쪽; 『扶桑錄』, 丁巳年(1617) 9월 28일(庚申), 『국역해행총제III』(1975), 125쪽; 『扶桑錄』, 丁巳年(1617) 10월 3일(甲子), 『국역해행총제III』(1975), 128

이렇듯 박대근은 1591년 일본어역관이 된 뒤 일평생을 대일(對日) 외교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가 활동했던 기간은 임진왜란과 일본과의 국교회복으로 이어지는 조선조 최대의 시련의 시기였다. 그러한 격변의 시기에 박대근은 국교회복교섭은 물론 임진왜란기 피랍된 조선인을 쇄환하기 위해 파견된 초기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뛰어난 외교교섭능력과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주었다. 비록 박대근이 직접 남긴 글이 남아 있지 않아 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세 차례의 사행록 만으로도 임진왜란기 조선을 대표하는 일본어 역관으로서 박대근의 역사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V. 맺는 말

이 글은 17세기 초반 작성된 사행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사절단이 취한 피로인 쇄환교섭전략의 특징을 다양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한편 교섭과정에서 많은 활약을 보였던 일본어역관들의 행적과 의의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 양국에 씻기 어려운 역사적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다. 특히 피해자로서의 조선에게는 인명(人命)의 손실 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수많은 피로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정착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상처가 더욱 큰 것이었다. 전후 조선의 대일본 쇄환교섭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최대한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선정부는 피로인의 쇄환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전후 국교회복의 전제조건으로 일본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로인의 쇄환을 명시하기도 했고, 1607년·1617년·1624년 세 차례 사절단의 명칭을 ‘회답겸쇄환사’로 결정하는 등 일본 측에 피로인 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각인시키려 노력했다. 사절단 역시 조선정부의 의지에 따라 피로인의 전원쇄환이라는 목적

쪽, 『扶桑錄』, 丁巳年(1617) 10월 8일(己巳), 『국역해행총재III』(1975), 131~132쪽; 『東槎錄』, 乙丑年(1625) 2월 5일(甲申), 『국역해행총재III』(1975), 263쪽; 『東槎錄』, 乙丑年(1625) 2월 8일(丁亥), 『국역해행총재III』(1975), 265쪽; 『東槎錄』, 乙丑年(1625) 2월 23일(壬寅), 『국역해행총재III』(1975), 269쪽; 『東槎錄』, 乙丑年(1625) 2월 24일(癸卯), 『국역해행총재III』(1975), 270쪽 등 참조 이 점에서 일본어 역관의 활동이 지닌 역사적 의의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경우에 따라 막부와 쓰시마 관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설득·압박하기도 하고 또 직접 피로인쇄환에 나서기도 했다. 비록 막부의 ‘피로인의 쇠환여부는 전적으로 피로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게 한다’는 소극적 쇠환원칙의 고수와 쓰시마관료들의 비협조 및 시대변화에 따른 피로인들 스스로의 쇠환거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쇠환교섭이 그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절단의 높은 사명감과 다양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 실천적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로인 쇠환교섭에서 보여준 일본어역관들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 것이었다. 초기 세 차례 사행에 모두 참여한 박대근을 위시한 일본어역관들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직업적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쇠환교섭의 최전선에서 설득과 협상, 압박의 전략을 구사하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였다. 동시에 직접 일본 각지에 파견되어 현지일본인들을 설득하고 담판을 벌이면서 한명의 피로인이라도 더 쇠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이들의 뛰어난 외교적·실무적 능력과 실천적 자세는 근세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일본어역관들의 역사적 위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으로 이어지는 한일관계사는 약 7년간의 치열한 전쟁과 이후의 국교회복 교섭, 그리고 피로인 쇠환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오늘날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파견된 조선사절단을 흔히 조선·일본간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소한 초기 세 차례의 일본 사행은 조선의 입장에서 치욕과 울분, 사명감과 동포애(同胞愛)가 혼합된 것이었다. 즉 우호의 의미보다는 갈등의 의미가 보다 큰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세 차례의 사행록은 그러한 특징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며 이를 통해 전후 20여 년간의 한일관계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다 귀국하지 못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정착했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일본에서 삶을 이어왔음은 자명하다. 과거 일본의 침략적 야욕과 이를 간파하지 못한 조선 정치가들의 무능이 불러 온 결과였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래 발전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일관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기 세 차례의

조선사절단과 여기에 참가했던 일본어역관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동방미디어 Web DB.

『譯科榜目(影印本)』. 서울: 민중문화사, 1990.

김문자, 「16~17세기 韓日관계에 있어서의 被擄人 쇄환: 특히 여성의 경우」. 『祥明史學』 8·9합집, 2003, 179~209쪽.

김정호, 「임진왜란기 피랍조선인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과 일본어역관의 역할: 1607년, 1617년, 1624년의 사행록을 중심으로」.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논문』. 2008.

나카오 히로시(저)/유종현(역), 『조선통신사 이야기』. 서울: 한울, 2005.

민덕기,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 잔류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인식」. 『韓國史研究』 160, 2008, 35~65쪽.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과 정보의 교류」.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1』. 서울: 學古房, 2008, 195~228쪽.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해행총재II』.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해행총재III』. 서울: 探求堂, 1975.

백옥경, 「譯官 金顯門의 日本認識: 1711년 사행록 『東槎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29집, 2007, 211~246쪽.

백옥경, 「譯官 吳大齡의 日本認識: 『溟槎錄』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38집, 2006, 127~162쪽.

백옥경, 「壬戌使行錄에 나타난 譯官의 활동과 日本認識」. 『韓國思想史學』 26집, 2006, 234~273쪽.

백옥경, 「朝鮮 前期 譯官의 職制에 대한 考察」. 『梨花史學研究』 29집, 2002, 131~150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통문관지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손승철, 「松雲大師(四溟堂) 對日使行의 외교사적 의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4』. 서울: 學古房, 2008, 179~201쪽.

손승철, 「조선시대 ‘통신사’ 개념의 재검토」. 『朝鮮時代史學報』 27, 2003, 5~32쪽.

손승철, 『近世朝鮮의 韓日關係史外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1999.

손승철, 『朝鮮時代 韓日關係史外研究』. 서울: 지성의 샘, 1994.

오바타 미치히로,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와 통역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 총서5』. 서울: 學古房, 2008, 125~148쪽.

田代和生(지), 孫承詰·柳在春(역), 『近世韓日外交秘史』. 춘천: 江原大學校出版部, 1988.

洪性德,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47~80쪽.

姜在彦, 『朝鮮通信使がみた日本』. 東京: 明石書店, 2002.

内藤雋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6.

李元植, 『朝鮮通信使の研究』. 京都: 思文閣出版, 1997.

山内長三, 「海北友松と朴大根」及「通信使と狩野常信」. 『韓國文化』 1984.5, 25~30쪽.

仲尾 宏, 『朝鮮通信使: 江戸日本の誠信外交』. 東京: 岩波書店, 2000.

仲尾 宏, 『朝鮮通信使と壬辰倭亂: 日朝關係史論』. 東京: 明石書店, 2007.

中村榮孝, 『日本と朝鮮』. 東京: 至文堂, 1967.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70.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8.

국문 요약

이 논문은 1607년의 『해사록(海槎錄)』, 1617년의 『동사상일록(東槎上日錄)』과 『부상록(扶桑錄)』, 그리고 1624년의 『동사록(東槎錄)』 등 초기 세 차례의 사행록(使行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사절단이 취한 피로인 쇄환교섭전략의 특징을 지속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한편 교섭과정에서 많은 활약을 보였던 일본어역관들의 행적과 의의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피로인의 쇄환은 피로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다’는 막부의 쇄환원칙 고수와 쓰시마(對馬島) 관리들의 비협조 등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사절단이 설득·협상·압박과 같은 다양한 쇄환전략과 방법을 활용하여 전원쇄환이라는 본래의 사행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언어소통의 매개자로서의 위치를 넘어 교섭과정과 쇄환전략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박대근(朴大根) 등 일본어역관들의 능동적이고 전문가적인 역할에 대해 기술했다. 특히 직접 일본 각지에 파견되어 한 사람의 피로인이자도 더 쇄환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일본어역관들

의 사명감과 실천의식이 쇄환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초기 세 차례의 사행을 통한 피로인 쇄환교섭이 16세기말부터 17세기 초로 이어지는 변동기 한일관계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초기 사행에 참여한 일본어역관들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투고일 : 2008. 10. 10. ● 수정일 : 2008. 12. 8 ● 게재확정일 : 2008. 12. 10.
- 주제어(keyword) : 사행록(使行錄, Sahaengrok,), 조선피로인(朝鮮被擄人, Kidnapped Chosun People), 쇄환교섭(Repatriation Negotiation), 일본어역관(Korean Interpreters), 박대근(朴大根, Park Dae Guen).